

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지난해 11월11일~12월15일까지 봉선·수완 등 중개업소 154곳 점검...81건 적발

외지인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하고 편법 증여·다운거래 등 의심 사례 521건 통보

광주시가 외지인의 집중 매수로 인한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용섭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의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154곳을 집중 단속



황룡강길 산책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산책길에서 시민들이 공공언 강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다.

한 결과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과태료 2건과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 유형별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와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 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증권계시 부정적 등 10건 ▲납인누락 4건 등이다.

또 화정동과 첨단2지구 등 외지인 집중매수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 인근 중개사무소 212곳을 연말까지 방문해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 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18일 광주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전남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 ‘호평’

전남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중상 잠복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476명을 검사해 모두 음성이나왔다. 전남도는 대형마트, 대중교통시설 등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최초 운영 시·군 신청 다중이용시설 중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동 버스를 도입했다.

이동 버스에서는 신속 항원키트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동 버스 운영으로 숨은 확진자를 찾고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동 버스를 운영한다.

6일 광양 산업단지, 7-8일 장성 농공단지, 11일 곡성 등이 예약돼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집단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 운영과 관련해 대상 사업장의 협조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인구소멸 지역 포함’ 무안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

출산준비·전입 상품권 지원 등 다양 지역 최대 현안 ‘무안시 승격’에 기여

무안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의 인구는 1969년 14만4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4년 6만2000명까지 감소했으나 전남도청 이전과 오룡지구 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 8만 60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

서는 자연감소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4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군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 정책과 아이낳는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진출 육구 해소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지원과 같은 국가정책과 함께 해피마미 출산 준비교실, 가족센터 건립 등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관내 전입하는 기업체 임직원과 군 장병의 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대학교 재학생도 4년간 총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일요일 회산백련지에 청단풍 65그루를 심어 아이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출산둥이 탄생의 숲’을 조성해 생명탄생의 소중함과 젊은 세대의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무안군의 지난해 말 기준 출생아 수는 423명으로 전남 군단위 중 1위를 기록했다.

무안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무안읍 일대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남악신도시와 오룡

지구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무안국제공항 일대 35만㎡ 부지에 총 448억원을 투입해 항공정비(MRO)를 중심으로 항공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 차별화된 인구 늘리기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무안시 승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며 “오룡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출산율과 일자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인구 10만의 명품 도농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